

'군사안보지원사' 27년 만에 새 간판

기무사, 역사속으로 단절 내달 1일 새부대 창설 목표 기무사령관 단장에 남영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해체된 뒤 새롭게 창설되는 보안·방첩 위주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결정됐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이 기무사 '해편'(解編·해체 후 재편성) 작업을 이어가고 다음달 1일 새 부대를 창설한다는 목표다.

김정식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무사를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국군기

무사령부령 폐지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안에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설치한다"며 "설치 목적, 직무, 직무수행의 기본 원칙, 부서와 부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뀐 지 27년 만에 다시 한 번 군 정보부대 간판이 바뀌게 됐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새 사령부의 목적 및 소속, 기본원칙, 조직 등으로, 국가안보지원사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출범해 기무사 해편 작업을 하는 동시에 새 부대 창설을 준비한다.

국방부 내 임시 조직인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단장 포함 21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감사파견) 등 4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광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요 임무는 사

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및 조직을 편성 운영해 훈련 제정과 인사조직을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직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은)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직전까지 활동하게 되며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에 의해 새 사령부가 창설되면 기존 4200명은 기무사 요원으로 선발되기 앞서 복무했던 원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된다.

군사안보지원사는 약 300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기존 보안·방첩 업무에 특화된 전문화된 인력은 새 사령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창설에 앞서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요원들은 철저히 배제될 것"이라며 "민간인 출신 감찰실장이 대대적인 내부 감찰을 벌여 선별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 현안해결 위해 힘쓸 것"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 도 방문 기자회견 열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기획재정부·3선)이 전북을 방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민주당 지킴이'이자 '전북의 머느리'로서 차기 당 지도부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북 발전을 위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의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고, 차기 지도부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의 중량감, 24년 민주당 지킴이로서의 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여성을 위한 정치를 온몸으로 실천해 온 여성

대표성, 그리고 적폐와 맞서 싸울 정의감을 보유한 저 유승희가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원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완성, ▲지방분권시대 견인, ▲여성당원 위상강화, ▲당의 안정과 혁신 달성 등을 제시하고 유일한 기초의원 출신 최고위원 후보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같은 과제를 확실히 달성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국판 러스트벨트"에 새 희망 선물

정동영 민주당 신임대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방문

민주당 정동영 신임대표가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해 한진중공업 노조와 면담하고, 김해에서 한진 가족대책위와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자 대량해고와 박근혜 정부 시절 조선업의 침체로 노동자들이 가장 고통받은 현장"이라며 "부산, 울산, 거제, 목포, 군산 등 제조업 침체로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있는 영호남 지역에 새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다시 희망버스를 타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힘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에 있었다"며 "5천만 국민들을 먹여 살린 제조업 중심 공업벨트가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전락하지 않고, 신산업벨트로 부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각계각층의 전문가, 노동자들과 함께 노사정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삼성과 현대, 대우 등 대형 3사 조선소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6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경영진의 안내를 받아 조선소를 둘러보고 있다.

"오늘 영도조선소를 방문해서 임직원과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진중공업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축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한진중공업과 같은 중견조선소를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여의도를 벗어나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숨소리가 들리는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며 "매일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일을 하다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건설현장에서, 농

작물이 메말라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논밭에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오르는 데 매출은 오르지 않는 골목상권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자물이 메말라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논밭에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오르는 데 매출은 오르지 않는 골목상권에서 민주당은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존재감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우원식 의원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2의 궁중폭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행산업과 유혹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점동시점과 대규모점포 중 분업점포, 독

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평화당, 봉하마을 방문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가 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정동영 대표는 늘 약자편에 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찾아 노사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퇴직 사태 때 연을 맺은 한진가족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경남 김해에서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후 봉하마을을 방문

했다.

정 대표를 비롯해 유성열·최경환·허영·양미강·서진희 최고위원과 박주현 대변인이 동행했다.

묘역에 도착한 정 대표는 지도부 대표로 방명록에 '한진중공업에 다녀왔다. 늘 약자편에 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고 적었다.

이들은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이후 묘역 앞으로 이동해 참배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향해 "저희는 한진중공업을 다녀오는 길이다. 평생 약자 편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 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